

국립수목원, DMZ서 생물의 보고 7곳 찾았다

이광덕 | 승인 2022.01.26

자연습지 3곳·인공습지 4곳
6.5ha 규모의 산림습원 발견

멸종위기종 '양뿔사초' 등
희귀식물 9종 서식 확인



▲ 민통선 습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식물 '양뿔사초'. /사진제공=국립수목원



▲ 민통선에서 발견된 파주 용산리 습지. /사진제공=국립수목원

국립수목원이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에서 산림 습원 습지 곳을 발견했다

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민통선 안에서 습지를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

일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국내 산림 습원 가운데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을
을 년마다 조사하고 있다

생태연구소와 함께 발견한 습원 곳은 자연 습지 나머지 곳은 과거 경작했거나 사방댐 건설로 생긴 인공 습지였다 총면적은 ha 만 m² 이다

이곳에선 멸종위기종 양뿔사초 를 비롯해 위기종 층층둥굴레 취악종 왕씀배 등 희귀식물 종도 확인됐다

산림 습원은 습지뿐만 아니라 과거 화전 경작 등의 활동으로 수분을 다량 함유한 지형이나 수분이 공급되는 지점을 뜻한다

산림생태계에선 수생태계와 산지환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 생물 다양성 보고 寶庫 로 불린다

그러나 민통선 습원은 일반인 접근이 어려운 지리적 특성으로 가시박과 같은 확산력이 높은 침입 외래식물에 노출돼 있다

여기에다 군사훈련 등에 의한 인위적인 훼손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

국립수목원 관계자는 “DMZ 내 우수한 산림 습원을 지속해서 발굴해 산림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”며 “기후변화로 사라지는 산림 습원을 보전·복원하기 위해 장기적인 연구계획을 수립하겠다”고 말했다.

/포천=이광덕 기자 kdlee@incheonilbo.com

저작권자 © 인천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이광덕

이광덕

[다른기사 보기](#)